

자연, 샤먼, 기술, 하이브리드 시대의 문화에 바치는 화환

유현주
미술평론가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서 “달콤함의 어두운 면이 개화(開花)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적인 제목의 이번 전시는 파스칼 바레가 오랫동안 탐색해온 생태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또 하나의 예술적 실험이다. 대전테미에 술창작센터에서 여름부터 약 3개월간에 걸친 레지던스를 하는 동안, 파스칼은 한국 사회의 모순된 문화를 관찰했다. 그 모순이란 기술만능 사회의 커튼 뒤에 편재하는 사면의 그림자, 즉 과학과 주술이 교차하는 우리의 관습에서 발생한다. 21세기 과학신진국을 꿈꾸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 한국에서 제사는 전통적인 문화로서, 조상신 혹은 귀신에 대해, 즉 영적인 존재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테크놀로지 시대와 샤머니즘이 뒤섞인 하이브리드의 문화는 암암리에 근대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산의 능선에 위치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곧장 도시와 이어지는, 자연과 도시의 경계에 놓여있는 테미와 유사하다. 바로 도시와 자연의 그 경계에서 파스칼 바레는 근대문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달콤함의 어두운 면”을 말하고자 한다.

“달콤함의 어두운 면”

자연과 도시, 혹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파스칼이 묻고 대답한 것들은 무엇일까?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파스칼은 그동안 일련의 작업들-Leaving by sea, Endora, Anthropocene, Avatar 등-에서 산업과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초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반성과 치유를 고민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다루는 주제인 자연과 문화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생태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세 근대의 전사실 중 평면작업만 설치한 한 전시실에서 파스칼은 유독 ‘그린(green)’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모던한 양식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한국의 시골집마다 지붕을 ‘그린’으로 칠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

다고 생각한 작가는, 도시가 갈망하는 자연의 “재현과 복제”로서 ‘그린’을 패러디한다. 나아가 파스칼은 2D와 3D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미지들을 스캔하여 3D프린팅으로 ‘고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다시 그것을 사진으로 찍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문화 혹은 예술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유하고자 한다. 사진 이미지들은 용과(dragon fruit)라 불리는 과일, 꽃, 참문, 낮은 집, 배로 보이는 오랜 건물, 테미창작센터의 위치에서 혹은 산에서 내려다본 전망의 풍경을 담았다. 이것은 파스칼이 한국에서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들을 재집한 이미지들이며, 작가의 사유 속에서 걸러진 결과, 사실적이라기보다 이국적이고 낯설게 느껴진다. 게다가 마치 안개가 낀 듯 신비로움마저 느껴지니까 지 하는데, 연한 청록색으로 프린트된 것들은 사진임에도 회화적으로 인식되며, 시공간을 초월해 가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러 엑스레이처럼 투명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작가는 이 사진들을 예술과 과학 사이의 경계에 놓인 한편의 시(詩)로 만든다.

한편 작가는 하나의 식물에서 문화적 이미지들을 중첩시킨다. 처음에 그녀는 생각의 유희불통한 모양에서 일종의 ‘절구 혹은 비명’의 이미지를 보았다. 작가는 이 절구하는 모습의 생각으로부터 어딘가 치킨과 닭은 이미지 혹은 몬스터 이미지를 환유(換喻)시킨다. 덕분에 우리는 생각의 다중적 이미지를 통해 모종의 문화적 코드를 읽게 된다. 그런데 왜 하필 치킨인가? 닭뼈는 오늘날 생태학자들이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라고 부르는 새로운 지질시대와 관련이 깊다. “인간이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용하면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한 화학자 파울 크루첸(Paul Crutzen)에 의해 시작된 이 비공식적인 용어는 “인간이 생산한 기체화합물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등 인류가 지구에 유례없는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해준다. 즉 ‘인류세’는 ‘방사성 낙진, 지구를 뒤덮은 플라스틱,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매연, 대규모 공장 사

육이 날은 닭뼈 등이 특징’인 시기이다. 이전의 전시에서도 파스칼은 ‘인류세’를 다룬 바 있는데, 파스칼은 이와 같은 자신의 작업에 사회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영향이 있음을 고백한다. 자연과 문화, 자연과학과 인문학, 인간과 자연 등 모든 이분법적 사유에 반대하는 라투르의 철학은 오히려 그러한 대립 사이에 놓인, 즉 경계에 놓인 것들을 사유하길 권고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철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아닌 것, 애니미즘, 샤머니즘의 존재가능성 또한 인정하고 있다.

“Fab Lab”, 막걸리와 화환

파스칼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샤머니즘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녀가 체류한 이곳 대전은 과학의 도시로 상징되지만 어려니하게도 무당과 점술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한국은 기술지상주의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장례식장마다 망자(亡者)를 위해 커다란 화환을 장식하고, 무당을 찾아가 소원을 빌거나 망자를 위로하기 위한 굿을 하기도 한다. 테크놀로지문명과 샤머니즘이 공존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현대인으로서만 간주할 뿐이다. 파스칼은 한국에서 마이내리티인 무당들과 비구니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급기야 서울의 샤머니즘 박물관에서 영감을 얻어 무당의 옷, 사옹도구, 나아가 그들이 소통하는 귀신 이미지들을 그려본다. 파스칼이 만드는 이미지들은 브리콜라주의 방식에서 생산되는데, 주로 비디오, 3D 스캐너, 3D 인쇄, 레이저 절단 등 디지털 도구들을 가지고 만든다. 그러한 것을 사용해 그녀는 무당의 이미지와 귀신과 화환 등을 제작했다. 파스칼은 또 다른 전시실 한 곳에 사람 키 높이만한 큰 장례식 화환들을 설치했다. 작가는 마치 귀신이라도 부르는 듯 스산한 사운드의 배경음과 함께 놓인 이 화환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이 시대 우리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한다.

이처럼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지만 파스칼은 기술과 과학의 도움으로 그러한 정신적인 것들을 물질화한다. 그녀가 체험한 한국문화에서 자연, 샤먼, 기술은 서로 뒤섞인 하이브리드의 문화에서 공존한다. 산으로 퇴출된 비구니들이나 무당들은 과학이라는 현대문명의 뒤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예술가는 버려진 장례식장의 꽃들을 주워 그것을 스캔하고 3D 프린터기로 재생하듯이, 과학기술에 의해 샤머니즘은 예술로 다시

소생한다. 파스칼은 자신이 만든 환상적인 실험실(Fab Lab)이라 이름붙인 전시공간의 한 콘서트 발효의 과학기술을 사용해 막걸리를 만들었다. 막걸리는 과학이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주술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주술 혹은 예술을 통해 작가는, 이 시대가 제공하는 ‘달콤함 속에 감추어진 어두운 면’을 토해내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빛과 에너지로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